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SBS 주말극 '하늘이시여' 6회 연장 방영

SBS 주말극 '하늘이시여'(극본 임성환, 연출 이영희)가 독일 월드컵 일정을 고려한 후속작의 편성 시기 조정으로 6회 더 연장됐다.

SBS 외주제작팀 관계자는 "후속작 '연개소문'이 6월 3일부터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월드컵 일정으로 인한 편성 변화로



3주 늦게 시작된다"며 "당초 2회분 정도를 늘려 했으나 작가가 에피소드를 추가하면서 4~6회분이 필요하다고 해 6회분 연장이 결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장방송 논란을 빚어온 '하늘이시여'는 결국 6월 중순께 81회로 종영한다.

'스타 작사가' 가수 꿈 이뤘다

■ 첫 음반 낸 '히트 메이커' 메이비
'갯 차' '중독' 등 인기곡 작사
"이젠 노래로 박수 받고 싶어"

"잘 나가는 작사가이니 생계에 지장 없었다. 뭐하러 가수 하나. 작사나 하고 시집 가서 편하게 살아라."

가수가 아닌, '히트 메이커' 작사가로 유명한 메이비(Maybee·본명 김은지)에게 이 같은 말은 늘 상처였다. 경남 창원에서 가수가 되고자 스무 살 때 상경, 6년간 몇몇 소속사에서 음반 작업하다가 중도 하차해 좌절된 그녀.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는 한 줄곧 꿈은 가수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음반 하나 손에 쥐는 게 소원이었다.

"사람들이 왜 이별 후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지 음반이 좌절될 때 깨달았어요. 밥도 못 먹고 말라갔죠. 엄마는 '글쎄가 있으니 가수하지 말고 유학 가서 문학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가 안 되더군요."

작년 11월 음반제작사 플레디스(PLEDIS)와 계약한 후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노래하기, 안무실 뛰며 노래하기 등 스프라타식 트레이닝을 가까이 감수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꿈을 위해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서야 1집을 손에 넣었다.

가수로 가는 방향의 길목에서 그가 얻은 건 작사가란 타이틀. 이효리의 '텐 미니츠(10 Minutes)' '리멤버 미(Remember Me)' '갯 차(Get Ya)',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그래도 남자니까', 김중국의 '중독' 등 메이비가 노랫말을 붙인 히트곡은 셀 수 없다. 스승인 작곡가 김건우 씨는 그에게 메이비(5월의 별)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꽃 많이 피는 따뜻한 5월의 화려함 속에 날아다니는 별처럼 살라고.

김건우가 프로듀싱한 메이비의 1집에도 14곡 중 타이틀곡 '다소'와 '미워' '캔디' '잘가' 등 10곡을 작사했다. 1집에는 발라드, 보사노바, 디스코 등 여러 장르를 담았지만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멜로디와 노랫말은 동양적이다. 그의 외모 또한 과거 강수지, 하수빈을 잇는 청순가련형인데다 음색마저 고운 미성이어서 외모, 노래, 음색 등 삼박자가 동양미로 통일된다.

김건우 씨는 "과워풀한 가창이 대세인 지금 미성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너의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렀을 때 그 느낌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자"고 보컬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6년 만에 꿈을 이뤘으니 그간 쌓아온 가수로서의 목표도 무궁무진하리라.

"시상식 대상, 1등은 차후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실수 안하고 노래 잘해서 박수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텐 미니츠' 가사에 놀랐던 부모님, 애견 미움을 하는 두 살 연하 남동생에게 이제 떳떳한 가수로 설 수 있어 기쁩니다."



이수영 영국무대 첫발

'韓·英 방문의 해' 기념 내달 1일 공연



가수 이수영(27)이 영국 런던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수영은 '2006~2007 한영 양국 방문의 해' 지정을 기념해 주영 한국대사관과 한인회가 5월1일 오후 7시30분 런던 크로이던(Croydon) 페어필드홀(Fairfield Hall)에서 개최하는 '2006 싱크 코리아, 코리아 판타지(Think Korea, Korea Fantasy)'(가제)에 대중가수로는 유일하게 참석한다.

이수영의 소속사인 리쿠엔터테인먼트는 "이수영이 한국 대중가수로는 유일하게 이 공연에 초청됐으며 이달 말 영국으로 출국, 30일 한차례 리허설을 가진 후 이틀날 2천여 관객 앞에서 히트곡 '그레이트스' 등 3~4곡을 노래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에는 영국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 예술인 2명, 영국인 성악가 1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1부에선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의전행사의 일환으로 양국 국가와 '한국 환상곡'을 연주하고, 2부에선 이수영 등이 노래한다.

"어린이의 순수함 스크린으로 전달"



영화 '마이키펀 김대출' 출연 정재영

지난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흥행배우로 자리매김한 정재영이 영화 '마이키펀 김대출'(감독 송창수, 제작 진인사 필름)로 돌아왔다.

이번에 맡은 역은 문화재 도굴꾼 김대출. 영화는 국보급 문화재인 금불상을 둘러싸고 김대출과 동네 꼬마 지민, 병오가 벌이는 숨바꼭질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에 초점을 맞췄다. '마이키펀 김대출'은 영화 '집으로'처럼 어린이의 순수성을 부각시킨 작품.

지난 10일 오후 서울극장에서 시사회 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송창수 감독은 "상처받은 어른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상처를 치료한다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정재영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라면서 "영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도 특유의 순박함이 묻어나는 연기로 아이들의 순수성에 동화되는 도굴꾼 김대출을 연기했다.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기 전 진행하는 의식 중 하나인 흙을 먹는 장면

등에서는 리얼한 연기도 보여줬다.

"진짜로 흙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정재영은 "음식물로 만든 흙이었지만 촬영 중 실제 흙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두 번 흙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팀에서 음식물로 만들어진 흙을 먹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음식물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흙 먹는 장면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산중에서 찍었습니다. 그 때도 미술팀이 흙을 만들어줬는데 빗물 등으로 진짜 흙과 섞어 입에 넣고 씹었을 때는 정말 흙이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시골 꼬마 지민을 연기한 남지현 등 아역들의 활약이 컸다. 어린이와 영화를 찍는 것은 처음이라는 정재영은 아역 연기자들의 연기에 대해 "성인 연기자들이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어린 못지않은 연기력과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 맘에 들었다고 했다.

자리를 함께 한 남지현은 정재영을 '대장'이라고 부르며 "(영화 출연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고. 병오 역의 김수효는 "큰 감동을 주는 영화"라며 영화 홍보에 한 몫을 하기도 했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별간모자의 진실 -시작은 요리책 도난 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건현장에 있던 4명의 용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법인으로 추궁 받는다.	롯데, 제일, 콜롬버스(상무, 하남), 메가박스, 무등, CGV(상무, 첨단), 목포 메가리안, 순천 프리머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원작으로 키키라 나이틀리, 매튜 맥퍼디, 도날드 서덜랜드가 출연한다.	롯데,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목포 중앙시네마, 목포 프리머스, 콜롬버스(순천)
에디슨시티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미국 최고의 모범적 도시인 '에디슨'을 잇게한 특수비밀경찰조직 F.R.A.T. 어느 날, 에디슨에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롯데,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첨단)
드림러 -11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다코타 패닝이 출연해 주목받고 있다.	롯데, 제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목포 중앙시네마, 목포 메가리안, 여수 할리우드 시네마, 순천 프리머스
달콤, 살벌한 여인 -30년만에 처음 연애를 시작한 한 남자. 그 남자의 애인에게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난다.	롯데, 제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목포중앙, 순천 프리머스, 여수 할리우드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조 -1976년, 신부로부터 퇴마 의식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했던 실재사건을 여러가지 시각에서 재조명한 스릴러물.	-롯데, 제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순천 프리머스
연리지 -사랑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민수,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해원이 만드는 애절한 사랑이야기. 최지우와 조하선이 주연을 맡았다.	롯데, 제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하남), 무등, 밀리오레, 엔터, 목포 중앙시네마, 목포 메가리안, 순천 프리머스, 여수 할리우드
매치포인트 -섹시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최신작.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사랑과 성공에서 갈등하는 남자로 등장한다.	제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하남)
청춘만화 -동갑내기 과외하기의 권상우와 김하늘이 두번째로 연인으로 등장해 호흡을 맞춘 영화다.	제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목포 중앙시네마, 순천 프리머스, 여수 할리우드
핑크팬더 -승리를 축하하던 프랑스 축구팀 감독이 운동장에서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뽀뽀한 덕앤제인 -삼시가 된지 하루만에 회사가 파산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덕과 그의 아내 제인의 돈을 벌기 위한 뽀뽀한 행각.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하남), CGV(상무, 첨단)
미중 -조선족 최순희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담히 그려낸 영화.	광주극장
굿나잇 앤 굿 럭 -미국 사회 맥키시 열풍의 정본인 조셉 맥키시 상원의원과 언론의 양심을 대변했던 에드워드 머로 뉴스 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결을 다루고 있다.	광주극장

당선확신!!

선거제도개정
 ● 선거관보, 선거관리, 원고작성, 유세방법, TV광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전화: 02-636-6533-4
 0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011-271-3111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음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031-278-4242
 272-8262
 624-6262